



서민을 위한 소신
서울 은평(갑)의 희망!
www.leemikyung.net

보도자료
2014.10.23.(목)

새정치민주연합, 국회의원
이 미 경
(국토교통위)

국회의원회관 1004호 / 전화 02)784-2677 / 담당 : 장창기 비서

이천,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정규직(사무) 44명(1.9%)에 불과

- 이천 롯데는 비정규직이 97.6%(1,400명), 경기도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전무

■ 현황/문제점

- o 경기도 내에는 대기업자본과 외자유치를 통해 조성한 프리미엄 아울렛 3곳이 영업 중이며, 같은 방식으로 2개소가 추가 건립될 예정으로 투자유치협약(MOU)을 체결
 - 이 점포들이 개소 당 최소 1000명~ 최대 3000명 이상의 직·간접 일자리창출과 연간 400만~600규모의 관광객을 유치,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홍보(보도자료 등)
- o 그러나 경기도와 기초 자치단체들의 홍보와는 달리, 일자리 창출효과는 간접 비정규직이 절대 다수를 차지,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남
 - '07년에 개장한 여주 첼시는 당초 일자리 개수 1,000개 대비 85.7%에 불과
이 중 30%이상이 비정규직에 종사.
 - 이천 롯데는 비정규직 비율이 97.6%. 종사자 1,434명 중 1,400명이 비정규직
 - 위의 롯데, 여주 첼시 2개 아울렛의 사무직 종사 정규직은 44명(1.9%)에 불과

※ 물류단지 내 입점 프리미엄아웃렛 입주 및 고용현황(경기도 자료 재구성)

| | 입주율 | 채용 예정 (경기도) | 실제 일자리 현황 | | | | | 비정규직 비율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
| | | | 합계(개) | 정규직(개) | | 비정규직(개) | | |
| | | | | 사무직 | 이외 | 사무직 | 이외 | |
| 여주첼시 (*07.영업) | 100% | 약 1,000명 | 857 | 10 | 586 | 3 | 258 | 30% |
| 이천롯데 (*13.7영업) | 76% | 약 1,000명 | 1,434 | 34 | 0 | 0 | 1,400 | 97.6% |

-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한국은행의 투자금액 대비 산업별취업유발계수를 단순 적용한 것에 불과,

전형적인 탁상행정임

※ 경기도 의정부시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 시 일자리 창출효과 계산 근거(경기도 제출)

- 경기도 보도자료(2014.7) : 의정부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 시 : **직접일자리 창출 1천개, 간접고용효과 3천여개**, 연간 400~500만 관광객 유치 효과 기대
- 고용효과산정근거(한국은행취업유발계수)
: 투자금액×환율×(취업유발계수(도소매업:28.4명)/10억원)
- 의정부시 고용효과 : 1억불 ×1,100원×(28.4/10억원) = 3,124명

o 당초의 “명품”위주 아울렛이라는 홍보와 달리, **지역상인들의 판매 품목업종과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**. 이로 인한 갈등도 확산

* 파주 롯데아울렛 입점 이후 지역 소상공인 매출 20% 급감 - 판매품목 중복 (sbs cnbc,2014.3)

* 파주 롯데세븐페스타 건립백지화 추진위 결성,서명운동 등

o 더욱 큰 문제는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자본유치를 추진, 초대형 상업시설을 유치하면서 이천을 제외하고는 **한 번도 지역상권(지역경제)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조사한 바 없으며**

- 이미 오랜 경험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악영향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자본유치, 영업 허가 등의 과정에서 <시흥>을 제외하고는, **지역 경제인들과의 상생, 취업확대 등과 관련된 “협약”체결 등을 유도하지도 않았음.**

* '14.9.시흥만 “지역경제활성화협약”을 체결

■ 질의 요지

o 경기도 투자유치과, 물류과 모두 물류단지 내 입주 업체를 제외하고는 **일자리, 관광객 유치 효과에 대한 점검 및 분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함. 홍보만 요란하게 하고, 실제 효과는 전혀 점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? 일자리,관광객 유치 현황을 제출할 것**

o 프리미엄 아울렛이 다른 유통매장과 다른 차이가 무엇인가? 외국명품만 파는 것도 아니고, 지역소상공인들의 판매품목과 상당부분 일치, 명품 할인폭도 기대보다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. 이 정도면 사실상 지역상권 죽이기 아닌가?

- 지역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은 외면한 채, 외국자본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기초 단체장들이 직접 나서 인허가 지원, 도로 등 기반시설까지 지원해 주면서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가? **지역 상권과 공존할 대책은 무엇인가?**

o 제대로 된 지역경제 과급효과 분석 한번 없이, 일자리 창출 개수를 과대 홍보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. 실질적인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보는데, 계획은?

- 특히 남지사가 미국까지 가서 MOU를 체결 유치 예정인 의정부의 경우, 보도자료¹⁾에는 4천개 이상의 일자리, 제출 자료에는 1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홍보, 정확한 계획이 무엇인가?

1) 2014.7.25., 보도자료

일자리의 구체적인 실행대책, 지역 경제와 상생 가능한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

- 프리미엄 아울렛들은 모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“대규모점포”로 개설 등록하고도, 100%점포 분양·임대, 주차장 유지관리 등만 담당. 사실상 부동산임대업 중(신세계첼시관계자 통화)
 - 그랜벨트까지 해제(의정부)해가면서 허가된 업종과 달리, 부동산임대업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대기업,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업에 등록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?
 - 또한 자본 유치 및 영업허가 전, 그리고 영업 중에 정기적으로 지역경제파급 효과 등을 분석해야 한다고 보는데, 관리 대책은?

※ 경기도내 프리미엄 아울렛 현황

| | 영업 중 시설 | | | MOU체결/개발 예정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여주첼시 | 파주첼시 | 이천롯데 | 의정부 | 시흥 |
| 지분 | 신세계50%, 사이먼 50% | 신세계50%, 사이먼 50% | 롯데 | 신세계,사이먼 | 신세계,사이먼 |
| 외자유치 | 8백억원 | 1천억원 | - | 1천억원 | 2천5백억원 |
| 토지 이용 현황 | 물류단지내 상 류시설(판매시 설 및 주차장) | 계획관리, 개발진흥지구 | 물류단지내 상류시설(판매 시설 및 주차 장) | 현재 그린벨트 | - |
| 연면적(m) | 38,168 | 86,000 | 183,778 | 130,000 | 145,000 |
| 영업개시일 | 2007.6 | 2011.3 | 2013.12 | 2018년 조성완료계획 | 2017년 조성완료계획 |
| 허가업종 | 대규모점포 | 대규모점포 | 판매,음식, 부대시설 | - | - |
| 입점업종 | 의류,잡화,식음 | 의류,잡화,식음 | 도·소매 브랜드 | - | - |
| 입점업체 | 145개 | 220개 | 354개 | - | - |
| 고용 현황 | 857개 (비정규직 261) | - | 1,434개 (비정규직 1,400) | 고용:1000여명 (보도자료4천개) 관광객:약500만 명 예상 | 고용:2000여명, 관광객:약700만 명 예상 |
| 지역상협약 | × (지역상협약중) | × (지역상협약중) | 이천시-시행 사(비공개) | 예정 | 2014.9.18. 체결 |
| 지역 경제 영향 연구, 성과 점검 | × | × | “지역상권 영향 분석(‘ 09)/경기개 발연구원 | × | × |
| 기타 | 경기도 인허가 | 기초 단체 | 경기도 인허가 | 그린벨트해제 필요-국토부 | 기초 단체 |